

주제회의
노인

“국가 폭력에 희생된 유가족으로의 삶”

양성주
[한국, 제주 4.3 기념사업회 조직위원장]

제주4·3과 노인

- 국가 폭력에 희생된 유가족으로의 삶

1. 들어가며

제주4·3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민주화가 진행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1978년에 현기영작가의 순이삼촌이 변방에 머물렀던 제주4·3을 중앙에 소개하기도 하였지만 정부는 바로 출판금지 등을 통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금지 시켰다. 민주화의 열기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부터 제주의 4·3의 진실을 알리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였고, 1999년 12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그 동안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폭도’라는 이름으로 숨죽였던 사람들이 제주4·3희생자로 결정을 받게 된 것이다.¹⁾

2003년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이하 진상보고서)는 4·3의 진실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4·3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확인한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다. 이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건의한 내용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도민과 4·3유가족에게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사과하였다. 대한민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과한 첫 사례라 할 것이다.

제주4·3유족들은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대통령의 사과를 아주 뜻깊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주4·3사건이 종결되고도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가족에게조차 선뜻 얘기할 수 없었던 삶의 고통에 대해 이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주4·3사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생자로 결정된 자는 14,532명이다.²⁾ 이중 사망자는 10,422명이고, 행방불명인이 3,631명, 후유장애인 195명, 수형인 384명이다.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10세 이하 818명(5.3%), 11세~20세 2,534명(17.4%), 21세~30세 5,536명(38.1%), 31세~40세 2,332명(16%), 41세~50세 1,421명(9.8%), 50세 이상 1,888명(13%)이다. 유족으로 결정된 자는 82,616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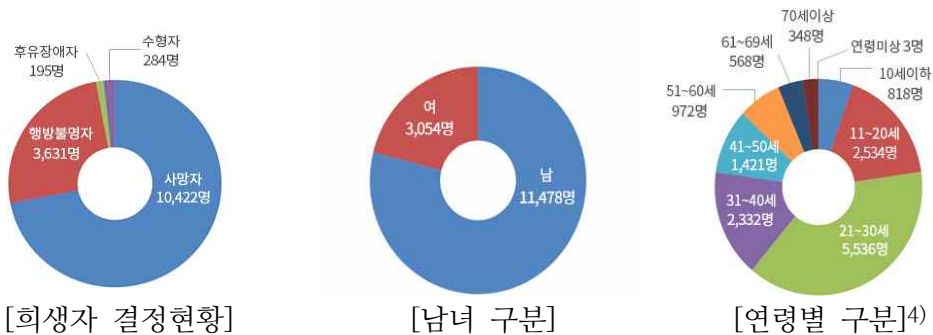
희생자 연령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10세 이하 어린이와 50세 이상 비율이 18%이며 여성은 21%이다. 무장대를 사살한 것이라는 토벌대의 주장과는 거리가 먼 지표들이라 할 것이다.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 현재 1만4천 여 명이지만 당시 제주 인구 30만 중 10%에 해

1) 특별법에서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학살된 사건’이라 정의하고 있다. 2000년 1월 제정 공포.

2) 2020년 6월 30일 현재.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당하는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신고를 받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또 온 가족이 몰살되어 신고조차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 강제로 소거되어 재건되지 못한 마을이 100곳이 넘는다.³⁾ 제주에서 노인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제주4·3과 별도로 생각할 수 없음이다.



[희생자 결정현황] [남녀 구분] [연령별 구분]⁴⁾
 후유장애인으로 결정된 분들의 경우 195명으로 사망희생자의 규모에 비해 너무나 적다. 이는 후유장애 판정이 엄격함도 있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다 보니 당시 혹독한 고문과 상처가 있었음에도 상흔이 사라져 버리기도 했고 4·3과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 본론

4·3 당시에 유복자로 태어난 분이 벌써 70을 넘겨 노인이 되었다. 제주4·3 희생자를 가족으로 둔 유족들은 대다수가 어려움 속에서 살았다. 힘들게 살았던 사연들은 각양각색이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당시는 대부분이 소규모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육체노동을 할 가장이 없다는 것은 생계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후유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신체활동을 할 수 없어 그 어려움을 더 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이 무명천할머니이다.⁵⁾ 둘째는 ‘폭도가족’이라는 오명이다. 빨갱이 가족 또는 폭도새끼라는 손가락질은 배고픔보다 더 힘들었다 하고 본인도 그렇지만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것에 무척이나 가슴 아파 하였다. 중산간 마을이 소개 되면서 해안가 마을로 내려갔지만 결국 폐허가 된 마을로 되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 ‘폭도새끼’라는 손가락질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연좌제 피해이다. 4·3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연

3)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년, p517~p524

4)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자료 참조

5) 본명 진아영, 1949년 1월 토벌대의 총격으로 아래턱이 소실되었다. 이후 상처를 무명천으로 항상 감싸고 생활하면서 무명천할머니라 알려졌다. 2004년 91세 나이로 돌아가셨다.

들이 많다. 수형인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도 계속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사찰을 받기도 하였고, 자식들이 진학과 취업에 특별한 이유 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 4·3에 대해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한다.⁶⁾ 또 하나는 경계인의 삶을 사는 경우이다. 4·3 대학살 시기에 한국 땅을 떠나 일본에서 생을 이어가는 재일본제주인들은 일본인도 아니면서 자신을 핍박하고 가족을 학살한 남한도, 그렇다고 북한도 국적도 갖지 않는 경계인(Diaspora)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⁷⁾. 재일동포가 많았던 제주4·3피해자 가족들은 조작간첩사건에도 늘 시달려야 했다.⁸⁾

국가폭력에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 어떻게 살아 왔는지 조금씩 차가 있었다. 몇 면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면담을 통해서는 ① 4·3피해자 ② 4·3이후 생활 ③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에 대한 만족도 ④ 가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런 생각은 언제부터? ⑤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⑥ 앞으로 바라는 것은? ⑦ 자신의 삶에 대한 점수는? 등을 질문을 드렸다.

○ 현경아 1920년생, 남편이 희생자.

면담자	현경아 1920년 희생자의 배우자
① 4·3피해자	남편 1918년생, 1948년에 행방불명됨
② 4·3이후 생활	남자들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만 했다. 재산이 없어서 놀 수 없었다.
③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에 대한 만족도	아직 명예회복은 멀었다.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며 명예회복도 되지 않은 것이다.
④ 가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언제부터?	이승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전부터 남편을 이승만이 다 죽이라 했다 들었다.
⑤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부지런히 살면 다 살게 된다.
⑥ 앞으로 바라는 것은?	남편 시신을 찾는 것이 원이다. 남편 봉분 하나 만드는 것이 소원이다.
⑦ 자신의 삶에 대한 점수는?	100점 남편 없이 살았지만 시댁에서도 인정받게 살았다. 수많은 상장 중에 종친회에서 받은 감사패를 제일 감격스러워 함

○ 김남규 1941년생, 부친이 배제된 희생자.

면담자	김남규 1941년생
-----	------------

6) 4·3진상보고서 앞의 책, p500~508에 연좌제의 피해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7) 소설가 김석범, 시인 김시종 등이 대표적이다.

8) 오마이뉴스, [탁본에 남긴 잔혹한 기억]4·3을 자꾸 말해야 한다는 김인근, 2020.08.29.

① 4·3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김대진), 어머니, 찢먹이동생
② 4·3이후 생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교사였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해서 한자도 읽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았다.
③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에 대한 만족도	똑똑한 아버지가 4·3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명예회복은 하나도 된 것이 없다
④ 가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언제부터?	국가에서 책임져야, 아버지 신고한 할머니는 삶이 순탄치 않았다.
⑤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폭도라는 말을 듣는 게 제일 싫었다.
⑥ 앞으로 바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명예회복
⑦ 자신의 삶에 대한 점수는?	100점. 힘들게 살았지만 잘 살아왔다.

○ 양유길 1933년생, 오빠 2명이 희생자.

면담자	양유길 1933년생
① 4·3피해자	큰오빠, 작은오빠
② 4·3이후 생활	부모님이 육지로 이사해버림, 남의 이름을 사용해서 교사생활 함. 5~6년 전에 제주로 옴
③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에 대한 만족도	명예회복은 아직 멀었다. 오빠들이 왜 죽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④ 가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언제부터?	이승만, 할아버지가 이승만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해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함
⑤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친척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름까지 바뀌서 생활함
⑥ 앞으로 바라는 것은?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⑦ 자신의 삶에 대한 점수는?	너무 억울하게 살아왔다. 남의 이름으로 살아왔다. 점수 받을 자격이 없다. 오빠가 본인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함.

○ 오영종 1930년생 후유장애인, 생존수형인, 재심재판 승소함.

면담자	오영종 1930년생 총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 대구형무소 수형인
① 4·3피해자	본인과 할아버지
② 4·3이후 생활	형무소에서 6년8개월 수형생활(1948년3·1절특사로 50% 감형된 것이라함), 2019년1월17일 재심청구 공소기각 판결 받음
③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에 대한	만족함

만족도	
④ 가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언제부터?	이승만의 책임, 나중에 4·3을 알게 되면서 그런 생각함. 살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해서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⑤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시도 때도 없이 감시하고 폭도 소리 들었던 것
⑥ 앞으로 바라는 것은?	모든 4·3희생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⑦ 자신의 삶에 대한 점수는?	대체로 만족, 아이들 큰 부족함 없이 키웠다.

○ 김명원 1933년생, 아버지와 가족이 희생됨.

면담자	김명원 1933년생
① 4·3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5살 동생, 1살 동생, 여동생은 정씨 집안 호적에 올려져 있음
② 4·3이후 생활	육지에서 직장 다니면 생활
③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배상이 이루어져야 명예회복이 된 것이다.
④ 가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언제부터?	국가에 책임이 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함.
⑤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가족이 몰살되다시피 했는데 2000년까지 병어리처럼 살았던 것이 가슴 아프다.
⑥ 앞으로 바라는 것은?	배상도 실시하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⑦ 자신의 삶에 대한 점수는?	0점. 아버지 시신을 찾지 못한 한이 너무 크다.

○ 김두운 1948년생, 아버지 제주비행장에서 처형됨.

면담자	김두운 1948년생
① 4·3피해자	아버지. 군법회의를 통해 사형 집행됨.
② 4·3이후 생활	어머니는 자신을 낳고 재가하여 가버림. 할머니 손에서 큼.
③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에 대한 만족도	하나도 된 것이 없다.
④ 가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언제부터?	이승만.
⑤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외로움. 폭도새끼라는 말을 들을 때.

⑥ 앞으로 바라는 것은?	수형인 명부가 없어져야 하고,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⑦ 자신의 삶에 대한 점수는?	70점. 아버지 시신을 찾지 못함.

○ 고완순 1939년생, 북촌초등학교 대학살 목격자

면담자	고완순 1939년생
① 4·3피해자	3살 동생, 외삼촌 (이맹복, 이맹사, 이맹림) 사망.
② 4·3이후 생활	제주에서 농사일 하다가 육지에 가서 직장 생활함.
③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에 대한 만족도	대체로 만족. 연좌제 없어지고 폭도소리 안 듣고, 대통령이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한 것에 만족.
④ 가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언제부터?	나라에 책임을 물어야 함.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함.
⑤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너무 배고팠던 것이 힘들었다.
⑥ 앞으로 바라는 것은?	억울한 마을을 풀어주어야. 미국 책임도 물어야 한다.
⑦ 자신의 삶에 대한 점수는?	100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삶이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고 있다.

○ 고헌형 1944년생, 아버지 행방불명됨.

면담자	고학형 1944년생
① 4·3피해자	아버지, 행방불명, 대구형무소 15년형 수감 중 행불. 큰아버지는 무장대에 희생됨.
② 4·3이후 생활	고향인 남원 하례에서 제주시로 이사. 자영업을 하면서 생활.
③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죄가 없음을 밝혀주지 않았다.
④ 가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언제부터?	명령을 내린 최고 책임자. 어릴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유족회 활동하면서 생각하게 됨.
⑤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온 거.
⑥ 앞으로 바라는 것은?	아버지가 희생된 것에 대해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 죄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재심청구를 했다.
⑦ 자신의 삶에 대한 점수는?	100점. 어려웠지만 잘 살아왔다. 1남5녀 자식들도 잘 컸다.

○ 양성홍 1947년생, 아버지 대전형무소 수감 중 학살됨. 배상판결 받음.

면담자	양성홍 1944년생
① 4·3피해자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군법회의 7년형 받고 대전형무소 수감 중 한국전쟁 발발하자 대전골령골에서 집단학살됨.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완료. 배상받음.
② 4·3이후 생활	어릴 때 지인에게서 절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얘기들음.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두 달 만에 신원조회로 퇴사 당함. 그 이후 건설업에 종사.
③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수형인 명부에서 기록 삭제해야 함.
④ 가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언제부터?	1차적 책임은 군경책임자. 최종책임은 이승만. 어릴 때는 책임을 물을 생각은 전혀 못했고 유족회 활동하면서 그런 생각함.
⑤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경제적 어려움, 외롭게 컸다. 의논할 아버지가 없어서 힘들었다.
⑥ 앞으로 바라는 것은?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한다.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⑦ 자신의 삶에 대한 점수는?	50점. 유족회 활동을 제대로 못했고, 육지에서 생활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 양태종 1942년생, 부산형무소 수감 중 행방불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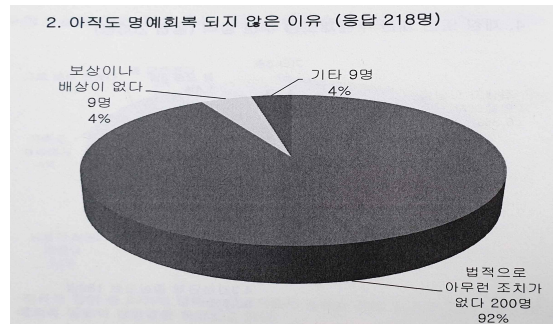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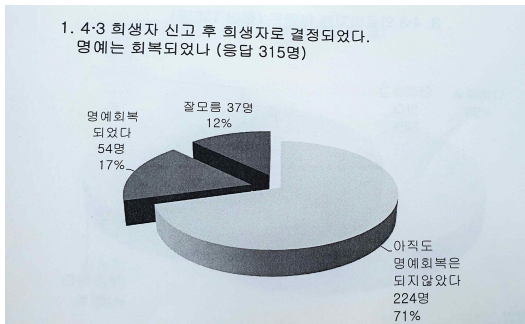
면담자	양태종 1942년생
① 4·3피해자	아버지. 집에서 경찰들과 같이 갔는데 행방불명됨. 부산형무소 수감 중 한국전쟁 발발 시 집단학살됨.
② 4·3이후 생활	전신전화국에 입사했으나 신원조회가 필요한 부서에 가지 못함.
③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어떻게 잡혀가고 죽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④ 가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언제부터?	이승만. 어릴 때는 4·3을 잘 몰랐고 나이 들어서 알게 됨.
⑤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외로움. 의논한 대상이 없음. 아버지가 없어서 용기가 없었다.
⑥ 앞으로 바라는 것은?	군법회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⑦ 자신의 삶에 대한 점수는?	80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왔다.

○ 홍성효 1947년생, 아버지 한국전쟁예비검속희생자. 공항에서 총살로 알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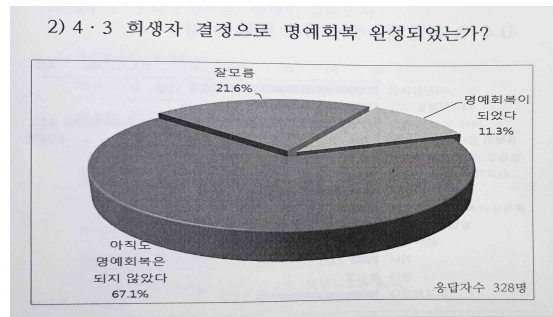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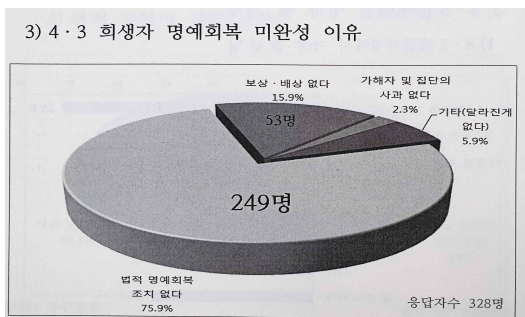
면담자	홍성효 1947년생
① 4·3피해자	아버지 영림소장으로 근무 중 예비검속으로 학살됨.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조사완료. 배상받음.
② 4·3이후 생활	어머니가 자식을 데리고 친정 고향 함덕에 가서 생활함. 도청 운전기사로 20년 근무 후 개인택시 함.
③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배상은 받았지만 아버지 시신을 못 찾아서 명예회복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음.
④ 가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언제부터?	이승만이 통치를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함.
⑤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이 힘들었다. 호로자식이라는 애기 듣는 것이 힘들었다.
⑥ 앞으로 바라는 것은?	4·3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한다.
⑦ 자신의 삶에 대한 점수는?	40점. 젊었을 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몰랐다. 항상 손해 보는 삶이었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기엔 아쉽다. 자식들한테도 미안하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에서 2017년⁹⁾과 2019년¹⁰⁾에 발표한 자료에서 4·3희생자 결정으로 명예회복이 완성되었는가를 조사한 바 있다.



[2017년 조사 자료집]



[2019년 조사 자료집]

9) 제주4·3 인천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자료집(2017). 제주4·3도민연대. p99~p100

10)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자료집(2019). 제주4·3도민연대. p43~p44

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족들이 아직도 명예회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단지 말뿐인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별도의 법적조치가 따르는 명예회복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자가 수형인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수 있다. 수형인 대부분이 한국전쟁 중에 집단학살 시기에 어디서 죽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아직도 수형자 기록에 죄인으로 남아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70년 전 4·3을 겪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상당수 돌아가셨다. 아직 살아계신 노인들도 언제 생을 마감할지 알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 하지만 4·3에 대한 기억은 점점 더 뚜렷하게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50년 이상을 원통함에 대해 얘기도 할 수 없었지만 잊지는 않고 있었던 것이다.

아픔의 시기를 겪으면서 대응하는 방식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살기 어려워 아무런 생각할 겨를 없이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현경아(100세)할머니, 오영종(97세)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 분들은 늘 “살았시라. 살았시라. 살아진다.”¹¹⁾ 라고 말하신다. 하지만 어떤 분은 국가에 충성함으로써 ‘빨갱이’가 아님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제주출신 해병대 3~4기들의 얘기는 자주 회자된다.¹²⁾ 지역 예비군소대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고학형 증언자가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경우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증언자 중에서는 김두운, 양태종유족과 같은 경우이다.

재심재판을 통해 수형 생활한 것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오영종할아버지를 제외하면 증언자 대다수는 아직도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생각 하신다. 특이한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 배상까지 받은 양성홍, 홍성효 증언자도 아직 명예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본인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답변은 극단적으로 나뉘었다. 현경아, 김남규, 고학형, 고완순 증언자가 100점이라고 대답을 한 반면, 김명원 증언자는 0점이라고 했는데 김명원 증언자는 눈앞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한 것과 여동생이 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지금도 남매가 만나면 눈물 밖에 안 나온다고 한다. 100점을 스스로에게 준분들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잘 이겨내며 살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셨다.

대다수 제주4·3피해자 노인들은 아직도 본인의 명예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중인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불법군사재판의 무효를 선언하고 희생자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호적이

11) “살고 있어라. 살고 있으면 다 살아가게 된다.”

12) 제주4·3평화기념관 제5관 [흐르는 섬 - 후유증과 진상규명 운동에 소개됨]

잘못되어 다른 친척의 자식으로 또는 전혀 엉뚱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주4·3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다. 이런 사연을 안고 살고 계신 노인들의 안타까움을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해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4·3광풍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 경계인의 삶을 살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며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복지가 더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후유장애인 결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 소외되는 분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제주4·3희생자로 결정을 하였다.¹³⁾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에 대해서 폭 넓게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 할 것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4·3피해 노인 중 39%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4·3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에 대한 노후 대책을 늦기 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이 되신 희생자와 유족이 마지막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치유와 재활을 위한 요양시설과 프로그램들이 확충되기를 희망한다.

13) 제주일보, 2020.03.27.

14) 뉴스제주 2015.07.14.